

즉시 배포용: 2020년 10월 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모든 카운티에서 코로나19 신속 검사가 가능하다고 발표

**뉴욕주는 현지 보건부 및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초기 분량인 신속 검사 키트
400,000개 배포**

**뉴욕주는 집단감염 대응 이니셔티브의 "옐로우존" 내 학교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지역에 필요한 분량의 신속 검사를 제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의 모든 카운티에서 코로나19 신속 검사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DOH)는 초기 분량인 신속 검사 키트 400,000개를 현지 보건부, 병원, 약국 및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무료로 배포하여, 뉴욕주 전 구역에서 검사실로 검체를 보내지 않고 15분 내에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DOH는 검사 키트를 최근 확진 사례가 급증한 지역의 보건부 및 현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우선으로 배포합니다. 신속한 검사는 새로운 확산 사례를 방지할 수 있으며, 예방적 검사 실시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주지사의 [집단감염 대응 이니셔티브\(Cluster Action Initiative\)](#)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전염 상황을 관찰해야 하는 '옐로우존' 내 학교의 학생 및 직원의 검사에 필요한 분량의 키트를 확보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 발생 1일차부터 검사는 코로나19 뉴욕에서의 확산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뉴욕주는 전국을 선도하는 검사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뉴욕주의 모든 지역으로 신속한 검사를 확대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와 지역에게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여 주민과 환자들에게 신속한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속 검사 키트 배포를 통해 주 전역의 보건 기관이 코로나19 확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발생을 통제하며, 가족과 지역사회 안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정부는 최근 확진 사례가 급증한 지역사회 인근의 학교 및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에 대하여 신속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 정부에 예방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곳에 무료로 신속 검사 키트를 제공하여 모든 지역에서 새로운 기준에 따라 부모, 교사, 학생 대상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교육을 보장할 것입니다."

뉴욕주 집단감염 대응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주지사는 화요일 "옐로우존(Yellow Zones)" 구역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실시하려면 대면 수업 참가 학생, 직원, 교사가 적어도 일주일에 1번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뉴욕주 보건부는 대면 수업을 진행하며 "옐로우존"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10월 16일 금요일부터 20 퍼센트의 학생, 교사, 직원에 대하여 일주일 1회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행했습니다. 모든 결과는 DOH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코로나 보고 카드(COVID Report Card)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주정부는 지방 정부, 보건부, 학교 또는 지방 정부가 지정한 지역 보건 기관에 무료로 신속한 검사 키트를 제공합니다. 학교와 지방에서 새로운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주정부가 집단감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지역과 가까이에 위치한 학교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DOH는 오늘 모든 지역 보건부, 병원, 약국 및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 및 기관에 서신을 발송하여 신속 검사 키트 수령 및 이용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